

# 청소년의 배경변인, 가정적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성향이 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Adolescent's Background, Family Self-Esteem,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on Etiquette Implementation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 사 장 혜 숙\*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겸임교수 최 배 영\*\*

Dept. of Cultural Indust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

*Master:* Chang, Hye Suk

Dept. of Cultural Indust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

*Plural Professor:* Choi, Bae-Young

##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dolescent's background, family self-esteem, and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on etiquette implementation. The subjects were chosen to include 1,119 adolescents attending middle or high school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positive family self-esteem, a harmonious 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and smooth etiquette implementation was high among those who were satisfied with school life, had talks with their parents often, and felt a need for etiquette education during teen years. Second, the variables affecting the adolescents' etiquette implementation were family self-esteem, understanding, communication, intimacy, trust in interpersonal relations

\* 주저자 : 장혜숙(fall-hs@hanmail.net)

\*\* 교신저자 : 최배영(kb9112@hanmail.net)

and recognition of the necessity for etiquette education.

**Key Words** : 청소년(adolescents), 가정적 자아존중감(family self-esteem), 대인관계 성향(interpersonal relations disposition), 예절수행(etiquette implementation)

## I. 서론

### 1. 문제제기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과도기에 있는 만큼 조화로운 심신의 발달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인적 인간상을 추구하는 인성교육은 청소년기의 필수 과제라 할수 있다. 그러나 학벌위주의 사회풍토가 인성의 중요성을 소홀히 여기게끔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우리 청소년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청소년의 인성교육은 단순한 일회성 대책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이에 바람직한 가치관과 윤리체계의 확립을 이루는 생활규범인 예절에 기초를 둔 인성교육이 요구된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예절수행의 능력이 장차 습관화되어 성인이 된 후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생활을 올곧게 하는 인성적 자원으로 발현됨을 볼 때 청소년의 예절수행 능력을 도모해야 하는 가정과 학교의 교육적 책임의 문제가 제기된다. 청소년에게 있어 가정과 학교는 예절교육의 장이다. 특히 가정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의 토대로 올바른 예절수행에 지지가 된다. 가정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존재가치를 긍정적으로 느끼고 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은 예절의 실행(이정우·김경아, 2002)으로 반영될 수 있다. 또한 가정의 주요 기능이 학교 및 사회 환경으로 다양하게 전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 환경과 청소년이 맺게 되는 관계 역시 예절수행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동일한 행동

을 반복, 학습하는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예절수행 능력이 증진되기 때문이다(이정우·김경아, 2004). 이제 청소년을 위한 예절교육에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있는 변인들을 찾아내고 그를 토대로 교육의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청소년기 예절수행 연구는 성별, 가족과의 의사소통,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같은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탐색(이길표, 1997; 김명옥, 1999; 이정우·김명나, 1999; 강선영, 2000; 이정남, 2000; 이정우·김경아, 2002; 지금수 등, 2002; 이정우·김경아, 2004)이 추가된 반면 청소년의 예절수행에 대한 이들 변인들의 영향력 분석은 시작단계에 있다. 또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정우·김명나, 1999; 이정우·김경아, 2002; 지금수 등, 2002; 김경아, 2003)과 예절수행의 관련성에 대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이들 연구는 총체적 개념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조명이어서 청소년이 가정 내에서 느끼는 자아존중감을 별도로 측정하여 예절수행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지는 못해왔다. 더불어 청소년이 지닌 학교 혹은 사회에서의 대인관계성향과 예절수행의 연관성을 찾기 위한 연구도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배경변인에 따른 가정적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성향, 예절수행의 정도를 파악한 후 세 변인들이 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의 터전인 가정과 대인관계연습의 환경인 학교가 청소년의 인성 함양에 기반이 되는 예절수행을 보다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실천적 방안 모색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첫째, 청소년의 가정적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성향, 예절수행의 전반적 수준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배경변인(성별, 학교, 부모와의 대화, 학교생활만족도,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가정적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성향, 예절수행의 차이는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의 배경변인, 가정적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성향이 예절수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 1. 가정적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개인이 자신의 특성과 능력에 대해 지니는 긍정적인 생각, 판단, 태도, 감정 및 기대 등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황기남(2003)은 자아존중감을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나 긍정적인 평가로 정의하였다. 이 같은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Coopersmith(1967)는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Inventory: SEI)를 제작하여 일반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학교적 자아존중감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각각의 평가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는 개인, 가정, 또래, 학교와 같은 개별 영역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접근이다(최보가·전귀연, 1992). 이 중 본 연구에서 다루는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이 가정 내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존재로 자신의 가치를 인식하는가, 즉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예: 나는 우리 가족 중 중요

한 사람이다,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주신다)에 관한 것이다.

가정환경은 개인이 태어나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곳으로 성장해감에 따라 습관, 태도, 생활양식 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Cecile, Elizabeth, Jackson과 Ouida(1991)도 가정을 개인의 인성과 가치감 형성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제공자로 보았다. 허영부(2002)는 가정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학교나 사회의 환경보다 심리적으로 강한 유대를 맺으며, 특히 부모와의 관계는 한 개인의 인격 및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어 대인관계나 사회적 적응에 긴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이 같은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인간의 성장과 행복에 필수적인 요소이다(홍성례, 2006).

### 2. 대인관계성향

대인관계는 두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를 의미한다. 김현경(1985)은 요즘 흔히 사용되는 인간관계라는 말은 인간 간의 심리적인 관계 또는 인간 대 인간의 상호적 행위양식을 지칭하는 광의의 의미인데 반해 대인관계는 소수의 사람들 특히 두 사람 사이의 1대 1 관계에 보다 중점을 둔다고 언급하였다.

대인관계성향은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게끔 하는 역할을 한다. 두 사람이 상호작용을 할 때 각자는 마음속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일련의 상(像)을 구성하며, 이러한 상은 그 상황 속에서 개인의 지각의 장(perceptual field)이 된다. 개인을 규정시켜주는 독특한 대인관계성향에 대한 평가는 상호간에 서로 주고받는 교류에 근거한다(고려옥, 2005). 박성환(2004)은 이 같은 대인관계의 성

향을 자신과 타인에 대한 만족과 이해, 타인과의 의사소통, 타인에 대한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관계 속에서 성장, 발달한다. 만족스럽고 효과적인 대인관계의 경험을 통해 보다 풍부하고 성숙된 인간으로 나아간다. 따라서 개인이 경험하는 대인관계의 양과 질에 따라 개인은 자아를 발달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황기남(2003)은 청소년기에는 대인관계를 통해 정보와 의견을 전달하는 것 외에 서로의 경험을 분배하고 교환하며 공유해가면서 점차 자기를 통찰하게 되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발달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남혜진(2007)은 청소년기에 효율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고립감과 공허함 등의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 시기에는 친밀한 대인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제를 안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청소년은 주로 부모, 형제, 친구, 교사 등과 대인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고 사회적인 자아상을 발달시켜 나가게 되며, 만족스러운 대인관계의 경험이 곧 사회생활에의 적응을 돕고 성인기 대인관계의 기초가 됨을 논의하였다.

### 3. 예절수행

예절수행이란 실제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예절을 지키고 있는가 하는 실천정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의미한다(이정우·김경아, 2004). 청소년기의 예절수행의 목표는 예절의 기본 정신을 알고 예절에 맞는 행동이 습관화되도록 하는 데 있다. 예절의 발달단계를 제시한 大平勝馬(1971)는 만 12~14세는 예절에 대한 생각이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내면기이며, 만 15~17세는 예절에 대한 적용이 개인은 물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

한 것으로 인식되는 전환기이고, 만 18세 이후는 예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양면적 성숙기라고 언급하였다. 이로 보면 중·고등학생 시기를 아우르는 청소년기는 예절에 대한 개념을 자신의 내면에 확립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결정적 시기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기에 확립된 참다운 예절수행의 습관은 성인기의 예절수행에 초석이 될 뿐 아니라 일생동안 연속성을 지니는 중요한 인성적 자원이 된다(배근희·최배영·김길령, 2006). 따라서 청소년기의 예절수행은 다른 시기에 비해 보다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이 태어나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노력은 시대를 초월한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대내적으로 수기(修己)하여 정성된 마음가짐을 지니고, 대외적으로 치인(治人)하여 공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자세 즉 웃어른을 공경하고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며 아랫사람을 사랑하면서 조화롭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예절의 본질이다(이길표, 1997). 이로 보면 청소년의 예절수행은 자기관리를 위한 대내적 수기로써 자신을 향한 존중 그리고 대인관계를 위한 대외적 치인으로써 타인과의 조화와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김경아(2003)는 청소년기의 예절수행에 있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예절의 목표는 곧 자기관리 및 대인관계와 상통하는 것임을 논의하였다. 원은진(200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이 매너수행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인관계에서의 공감능력과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높을수록 매너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 이 두 요인을 증진시키는 것이 곧 매너의 수행을 높이는 데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들 결과로 미루어볼 때 가정 내에

서의 자아존중감은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자기관리의 토대로 작용하여 청소년의 예절수행을 유도하며, 원만한 대인관계성향은 사회적 지지로써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예절의 수행을 도모할 것으로 유추된다.

#### 4. 관련변인고찰

청소년의 가정적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성향 및 예절수행에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성별

청소년의 가정적 자아존중감만을 별도로 측정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나 총체적인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변인으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닌다는 결과(박성연 등, 2001; 이완정, 2003)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가정적 자아존중감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는 일관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체로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서 친사회적 행동 특성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태운, 2005; 이승미·이경남, 2008). 그러나 일부에서는 친사회적 행동은 성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준수, 2000)되고도 있어 선행연구의 결과들이 불일치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의 성별 예절수행은 연구들마다 다소 상반된 견해를 보여 왔다. 선행연구(이정우·김경아, 2002; 이정우·김경아, 2004)에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예절수행이 높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연구(김명옥, 1999; 이정남, 2000)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기도 해서 일관된 견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2) 학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에게서 약간 더 높은 결과(고선주 등, 2004)가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학교 변인에 따른 가정적 자아존중감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인관계성향에 관련해서는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나타낸다(한광희, 1986; 이승미·이경남, 2008)고 보고되고 있으나 연령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가 없다는 보고(이경주, 2002)도 있어 선행연구간의 결과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한편 예절수행에 대한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차이를 밝힌 관련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규명해보고자 한다.

##### 3) 부모와의 대화

부모와의 대화는 가정에서 청소년과 부모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의 정도를 의미한다.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관련된 변인을 분석한 선행연구들 가운데 가정적 자아존중감에 초점을 맞추어보면 부모자녀 간 대화(김현경, 1985; Rice·Tucker, 1986; Deacon·firebaugh, 1988; 김희화, 1998; 고선주 등, 2004)의 중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가정 내에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갖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가 조심스럽고 일관성 있게 규칙들을 제시하고, 통제를 하되 비강제적인 통제를 선호하고,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관점을 표현하도록 하며, 자녀에 대한 애정을 자주 표시하는 특징을 지닌다(윤정연·황춘섭, 2007).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개방적일 때 사회성 발달이 높게 나타난다(김경원, 1999)고 보고된 바 있다. 방문희(1991)는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여 의사소통의 내용과 질에 다양한 변화를 주어 자녀로 하여금 사회에 적응할 수 있

는 대인관계성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연숙(1991)도 부모자녀 간의 대화는 청소년 자녀가 자아를 확립하고 사회에서의 원만한 적응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요인이 됨을 강조하였다.

한편 부모와의 대화 정도를 청소년의 예절수행과 연관 지어 볼 때 가족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할수록 청소년의 예절수행이 잘 이루어진다(이정우·김명나, 1999; 강선영, 2000)고 보고되고 있다.

#### 4) 학교생활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는 학교생활에 대한 청소년의 만족여부를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학교생활의 중요성(김희화, 1998; 양원경, 1999; 김정원, 2000; 고선주 등, 2004)이 강조되어 왔다.곽소현(2000)은 학교생활에의 적응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며, 그것은 가정에서 자녀로서의 지위와 역할에도 영향을 준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황기남(2003)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학교 환경은 청소년의 대인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곳으로 언행에 대한 학습과정이 이루어지는 교육적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 같은 견해에 의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에 따른 대인관계성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한편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와 예절수행을 다룬 직접적인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만족도에 따른 예절수행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 5)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은 청소년이 갖고 있는 예절교육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견해를 말한다. 청소년의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가정적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성향을 다

룬 선행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그 관련성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반면 예절수행의 경우 예절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청소년일수록 수행의 정도가 높다는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이길표, 1997; 지금수 등, 2002).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로 이들을 선정함에 있어 성별(남/녀)과 학교별(중학생/고등학생) 비율을 감안하여 표집 하였다. 2006년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10월 12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1,2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1,141부를 회수하였으며, 부실 기재한 22부를 제외하고 총 1,119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이에 분석대상 청소년의 성별은 남학생 575명(51.4%), 여학생 544명(48.6%)이었으며, 학교별로는 중학생 535명(47.8%), 고등학생 584명(52.2%)이었다.

#### 2. 조사도구

배경변인으로 조사대상 청소년의 성별, 학교 외에 부모와의 대화, 학교생활만족도, 청소년기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청소년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Coopersmith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활용한 최보가와 전귀연(1992), 박성환(2004)의 연구의 척도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총 9문항을 작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 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까지의 5점 리커

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 내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89였다.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문선모(1980), 박성환(2004), 박선아(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였다. 이는 Schlein과 Guerney의 대인관계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에 기초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6개 하위영역 총 18개 문항(의사소통 3문항, 신뢰감 3문항, 친근감 3문항, 민감성 2문항, 개방성 4문항, 이해성 3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 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원만한 대인관계성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척도 전체의 Cronbach's  $\alpha$ 는 .89였으며, 하위 영역별로는 의사소통 .75, 신뢰감 .62, 친근감 .78, 민감성 .82, 개방성 .74, 이해성 .72였다.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는 지금수, 나지원, 이진숙(2002), 김경아(2003)의 연구에서 적용된 척도의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6개 하위영역 총 35개 문항(대화예절 6문항, 인사예절 5문항, 공중예절 7문항, 가정예절 6문항, 사교예절 5문항, 음식예절 6문항)으로 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 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까지의 5점 리커트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예절을 실천하는 수행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alpha$ 는 .90이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대화예절 .74, 인사예절 .76, 공중예절 .70, 가정예절 .85, 사교예절 .73, 음식예절 .79였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SAS 9.0을 이용하여 자료를 통계처리하고 분석하였다. 청소년의 가정적 자

아존중감, 대인관계성향, 예절수행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살펴보고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적용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의 배경변인, 가정적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성향이 예절수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배경변인의 경향

청소년의 배경변인으로 학교생활만족도를 살펴보면 학교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남학생의 34.0%, 여학생의 25.6%로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만족도가 다소 높았으며, 남녀 모두 중학생이 고등학생에 비해 학교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대화에 있어 대화를 자주한다는 응답은 남학생의 45.2%, 여학생의 55.8%로 여학생의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각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중학생과 여자 고등학생이 부모와 대화를 자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예절교육의 필요성을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남학생의 57.9%, 여학생의 57.8%였으며, 남녀 모두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

### 2. 가정적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성향, 예절수행의 정도

청소년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5점 만점에 평균 3.27점으로 중간 정도의 수준을 나타냈다. 총 9개 문항 가운데 '나는 우리 가족 중 중요한 사람이다'에서 가장 높은 점수가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나

〈표 1〉 배경변인의 경향

N(%)

구분		남자			여자			합계
		소계	중학생	고등학생	소계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한다	195(34.0)	113(39.7)	82(28.4)	139(25.6)	86(34.4)	53(18.1)	334(29.9)
	보통이다	276(48.1)	138(48.4)	138(47.8)	287(52.9)	141(56.4)	146(49.8)	563(50.4)
	만족하지 않는다	103(17.9)	34(11.9)	69(23.9)	117(21.6)	23( 9.2)	94(32.1)	220(19.7)
부모와의 대화*	자주한다	260(45.2)	136(47.7)	124(42.8)	303(55.8)	131(52.4)	172(58.7)	563(50.4)
	보통이다	250(43.5)	126(44.2)	124(42.8)	195(35.9)	100(40.0)	95(32.4)	445(39.8)
	안 하는 편이다	65(11.3)	23( 8.1)	42(14.5)	45( 8.3)	19( 7.6)	26( 8.9)	110(9.8)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	필요하다	332(57.9)	150(53.0)	182(62.8)	313(57.8)	133(53.4)	180(61.4)	645(57.8)
	보통이다	205(35.8)	118(41.7)	87(30.0)	215(39.7)	112(45.0)	103(35.2)	420(37.7)
	불필요하다	36( 6.3)	15( 5.3)	21( 7.2)	14( 2.6)	4( 1.6)	10( 3.4)	50( 4.5)
계		575(51.4)	285(25.5)	290(29.5)	544(48.6)	250(22.3)	294(26.3)	1119(100.0)

\*는 무응답으로 인한 결측치를 제외한 것임.

는 집에서 행복하다'와 '나는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다',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주시다', '부모님은 내 기분을 잘 맞춰 주신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갖는다', '나는 좋은 아들(딸)이다',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할 만하다'의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한편 평균점수보다 낮은 응답이 나타난 3개의 문항들 가운데 부모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공유할 수 없는 한국 가정

의 현실이 간접적으로나마 반영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부모님에게 있어 좋은 혹은 자랑스러운 아들(딸)로 평가하는 데는 소극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 자녀가 자기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중요한 타인인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게 될 때 자신의 영역을 형성하게 되며, 다른 사람의 영역도 존중할 수 있고 알맞은 경계선

〈표 2〉 가정적 자아존중감

문 항	M(SD)
나는 우리 가족 중 중요한 사람이다.	3.53(0.98)
나는 집에서 행복하다.	3.49(1.07)
나는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3.49(1.08)
나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다.	3.47(1.03)
부모님은 나를 잘 이해해주시다.	3.40(1.08)
부모님은 내 기분을 잘 맞춰 주신다.	3.31(1.01)
나는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많이 갖는다.	3.19(1.08)
나는 좋은 아들(딸)이다.	3.11(1.09)
부모님이 나를 자랑스러워할 만하다.	2.93(0.99)

3.27(0.50)



〈표 3〉 대인관계성향 및 예절수행

구분		M(S.D)	
대인관계성향	신뢰감	3.49(0.66)	3.41(0.52)
	의사소통	3.47(0.70)	
	이해성	3.45(0.72)	
	친근감	3.45(0.68)	
	민감성	3.33(0.81)	
	개방성	3.29(0.67)	
예절수행	인사예절	3.58(0.64)	3.35(0.46)
	음식예절	3.56(0.71)	
	사교예절	3.43(0.65)	
	가정예절	3.38(0.72)	
	대화예절	3.18(0.58)	
	공중예절	3.08(0.61)	

을 확립하게 된다고 한 박소현(2000)의 견해에 의거해볼 때 급박한 우리 사회의 현실 속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하며, 자녀를 존중하고 격려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은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과 예절수행의 정도를 제시한 것으로 5점 만점에 대인관계성향은 평균 3.41점, 예절수행은 3.35점의 수준을 나타냈다. 먼저 대인관계성향의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타인과의 의사소통, 타인에 대한 신뢰감, 이해성, 친근감을 반영하는 자신의 대인관계성향은 비교적 높게 평가하는데 반해 민감성이나 개방성에 관련한 자신의 대인관계성향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는 대인관계에 있어 자신감을 갖고 임하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여 상호 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 개방성과, 상대방이 자신에게 원하는 바를 빨리 이해하고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민감성을 높이는 대인관계연습의 교육이 청소년기에 요구됨을 암시한다.

다음으로 예절수행의 하위영역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인사예절, 음식예절, 사교예절, 가정예절, 대화예절, 공중예절의 순으로 수행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즉 청소년들은 자신의 인사예절, 음식예절, 사교예절, 가정예절 수행의 정도는 높게 평가하는 반면 대화예절이나 공중예절의 수행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예절수행 실태를 분석한 이정우와 김경아(2004)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식사예절 > 사교예절 > 인사예절 > 가정예절 > 공중예절 > 대화예절의 순으로 수행 정도를 나타낸 점과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특히 공중예절과 대화예절에 대한 수행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연구결과가 일치하고 있다. 청소년에게서 공중예절 부문이 미약하게 나타나는 것은 공공장소 중심의 에티켓을 중시하는 서양예절에 비해 개인적 수양에 중점을 두는 동양예절의 정신에 기인한다(이정우·김경아, 2002). 또한 상대적으로 공중예절 수행의 취약성이 나타나는 본 연구의 결과는 개인 이기주의 확산에 의한 것으로 공중생활예절의 실천이 곧 청소년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한편 청소년의 대화예절 수행이 낮게 나타나는 점에 있어서는 대화를 나눌 때 간결하고 조리 있게 이야기하며, 말하는 속도나 목소리에 유의하고, 바른 호칭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대화예절의 실제적인 방안들을 청소년들이 이해하고 이를 적용하는 상황 중심의 교육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 3. 배경변인에 따른 가정적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성향, 예절수행의 차이

청소년의 배경변인에 따른 가정적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성향, 예절수행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4>를 보면 배경변인들 가운데 청소년의 성별, 학교별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집단, 부모와 대화를 자주하는 집단, 청소년기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대화정도에 따라 청소년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음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부모와 같은 주위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자기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하는 이영애(1989)의 견해에 부합된다. 이는 자아존중감을 심어주고자 하는 부모와의 대화 기회를 통해 청소년의 가정적 자아존중감 형성과 증진의 가능성을 암시한다. 이에 청소년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자녀 간 대화의 노력을 통해 관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변인으로 부모자녀간의 관계와 개방적인 대화를 지적한 연구들(김현경, 1985; Rice, Tucker, 1986; Deacon, Firebaugh, 1988; 김희화, 1998; 고선주 등, 2004)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청소년기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따라서도 가정적 자아존중감에 차이를 보이므로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향한 예절을 실천하는 교육을 몸소 이행함으로써 자녀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관계를 영위하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곧 가정적 자아존중감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학교생활만족도에 따라 가정적 자아존중감에 차이를 보이는 점은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에 학교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들(김희화, 1998; 양원경, 1999; 김정원, 2000; 고선주 등, 2004)의 결과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학교생활의 적응도가 청소년 자녀의 가정 내 지위와 역할에 영향을 준다는 박소현(2000)의 견해는 친구 및 교사와의 원활한 의견 교류와 관계를 통해 학교생활을 만족스럽게 영위하는 청소년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존재로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계기를 만들게 됨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배경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의 차이는 전체적으로 고등학생집단,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 부모와 대화를 자주하는 집단, 청소년기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이 높은 집단에서 보다 원만한 성향을 나타냈다. 반면 한준수(2000)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본 분석에서도 성별 대인관계성향의 집단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위영역들을 살펴보면 대인관계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 개방성, 이해성은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집단, 부모와 대화를 자주하는 집단, 청소년기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을 가진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은 고등학생집단,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집단, 부모와 대화를 자주하는 집단, 청소년기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을 지닌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배경변인 가운데 중학생집단에 비해 고등학생집

(표 4) 배경 변인에 따른 가정적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성향의 차이

구분		가정적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성향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전체
성별	남자(575)	3.25	3.43	3.47	3.43	3.29	3.26	3.42	3.38
	여자(544)	3.29	3.50	3.51	3.46	3.37	3.32	3.47	3.44
t		-1.37	-1.54	-1.08	-0.87	-1.66	-1.41	-1.18	-1.78
학교	중학생(535)	3.27	3.43	3.43	3.41	3.27	3.28	3.41	3.37
	고등학생(584)	3.28	3.50	3.54	3.48	3.39	3.31	3.48	3.45
t		-0.24	-1.48	-2.72**	-1.95	-2.56*	-0.72	-1.83	-2.41*
학교 생활 만족도	만족한다(334)	3.49A	3.64A	3.66A	3.67A	3.49A	3.45A	3.67A	3.59A
	보통이다(563)	3.20B	3.38B	3.40B	3.36B	3.22B	3.20B	3.36B	3.32B
	만족하지 않는다(220)	3.12C	3.44B	3.45B	3.33B	3.40A	3.28B	3.33B	3.36B
F		53.03***	15.29***	17.33***	27.66***	12.91***	15.25***	23.19***	32.41***
부모와의 대화	자주한다(563)	3.46A	3.55A	3.57A	3.56A	3.43A	3.41A	3.58A	3.52A
	보통이다(445)	3.12B	3.36B	3.39B	3.33B	3.23B	3.16B	3.32B	3.30B
	안하는편이다(110)	2.91C	3.45BA	3.50BA	3.37B	3.25B	3.18B	3.27B	3.33B
F		102.97***	9.36***	9.26***	15.27***	8.00***	19.31***	19.81***	24.42***
예절 교육의 필요성 인식	필요하다(645)	3.34A	3.54A	3.56A	3.53A	3.39A	3.35A	3.53A	3.48A
	보통이다(420)	3.20B	3.37B	3.40BA	3.35B	3.24B	3.20B	3.36A	3.32B
	불필요하다(50)	2.99C	3.33B	3.27B	3.16C	3.25B	3.24B	3.12B	3.24B
F		19.41***	9.58***	9.66***	13.82***	4.45*	6.45**	12.42***	15.66***

\*p<.05, \*\*p<.01, \*\*\*p<.001

단이 일부 하위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원만한 대인관계성향을 보이는 것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나타낸다고 한 한광희(1986), 이승미와 이경님(2008)의 견해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학교생활만족도에 따라 대인관계성향에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은 하루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의 경우 학교 내에 잘 적응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인간관계에 필요한 성향의 형성(이미라, 2001; 남혜진, 2007)에 토대가 됨을 반영한다. 부모와의 대화정도에 따른 차이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유형이 개방적일 때 대인관계에 있어 사회성 발달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김경원(1999)의 견해를 지지한다. 이로 보아 부모자녀관계에서의 대화는 청소년기 자녀가 대인관계의 적응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요소(이연숙, 1991)가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청소년기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따라 대인관계성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은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언행의 학습(황기남, 2003) 환경으로서 가정과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다시금 강조하는 측면이다.

<표 5>는 청소년의 배경변인에 따른 예절수행의 차이를 분석한 것이다. 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 부모와

〈표 5〉 배경변인에 따른 예절수행의 차이

구분		예절수행						
		대화예절	인사예절	공중예절	가정예절	사교예절	음식예절	전체
성별	남자(575)	3.14	3.56	3.03	3.36	3.40	3.60	3.35
	여자(544)	3.22	3.60	3.12	3.40	3.45	3.52	3.35
	t	-2.21*	-1.20	2.61*	-0.84	-1.23	1.88	0.00
학교	중학생(535)	3.21	3.58	3.13	3.41	3.40	3.55	3.37
	고등학생(584)	3.15	3.58	3.03	3.35	3.45	3.58	3.34
	t	1.59	-0.07	2.74**	1.55	-1.12	-0.72	1.06
학교생활만족도	만족한다(334)	3.31 A	3.74 A	3.24 A	3.57 A	3.54 A	3.72 A	3.51 A
	보통이다(563)	3.13 B	3.52 B	3.04 B	3.31 B	3.38 B	3.50 B	3.30 B
	만족하지않는다(220)	3.10 B	3.48 B	2.94 C	3.27 B	3.38 B	3.50 B	3.26 B
	F	13.01***	16.20***	19.32***	17.83***	7.14***	12.29***	29.42***
부모와의 대화	자주한다(563)	3.27 A	3.72 A	3.13 A	3.66 A	3.52 A	3.63 A	3.47 A
	보통이다(445)	3.07 B	3.45 B	3.04 BA	3.19 B	3.34 B	3.49 B	3.25 B
	안하는 편이다(110)	3.11 B	3.36 B	2.94 B	2.72 C	3.32 B	3.56 BA	3.15 C
	F	16.03***	31.58***	5.75**	127.17***	10.74***	5.13**	44.06***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	필요하다(645)	3.23 A	3.69 A	3.17 A	3.49 A	3.54 A	3.69 A	3.45 A
	보통이다(420)	3.11 BA	3.45 B	2.97 B	3.24 B	3.30 B	3.41 B	3.23 B
	불필요하다(50)	3.01 B	3.30 B	2.72 C	3.12 B	3.14 B	3.31 B	3.08 C
	F	8.28***	23.55***	23.57***	19.68***	24.14***	24.47***	42.17***

\*p<.05, \*\*p<.01, \*\*\*p<.001

대화를 자주하는 집단, 청소년기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이 높은 집단에서 예절수행이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는 대화예절의 경우 여학생집단,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 부모와 대화를 자주하는 집단, 청소년기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을 가진 집단에서 수행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인사예절, 가정예절, 사교예절, 음식예절의 수행은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 부모와 대화를 자주하는 집단, 청소년기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을 지닌 집단에서 수행이 높게 나타났다. 공중예절은 여학생집단, 중학생집단,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은 집단, 부모와 대화를 자주하는 집단, 청소년기 예절교육

의 필요성 인식을 가진 집단에서 수행정도를 높게 나타냈다. 이상 청소년의 예절수행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배경변인들 가운데 부모와 대화를 자주하는 집단에서 예절수행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는 가족 간 의사소통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예절수행이 잘 이루어진다고 밝힌 이정우와 김명나(1999), 강선영(2000)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청소년기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이 높은 집단에서 예절수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결과는 생활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과 생활예절행동의 정적 상관을 밝힌 이길표(1997)의 견해를 지지한다.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예절수행은 전체점수 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대화예절과 공중예절에서 여학생의 수행 수준이 높게 나타나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전반적으로 예절을 잘 실천한다고 한 이정우와 김경아(2002)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 4. 예절수행에 미치는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청소년의 예절수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어떤 변인들이 예절수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청소년의 예절수행에 미치는 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독립변인으로 성별, 학교, 부모와의 대화정도, 학교생활만족도, 청소년기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 가정적 자아존중감, 대인관계성향인 의사소통, 신뢰감,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을 설정하고, 예절수행의 영역들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상관관계가 0.5 이하로 독립성이 보장되어 분석에 이용되었다.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예절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적 자아존중감( $\beta=0.363$ ), 대인관계 내의 이해성( $\beta=0.154$ ),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 $\beta=0.138$ ), 대인관계의 의사소통( $\beta=0.136$ ), 친근감( $\beta=0.106$ ), 학교( $\beta=0.077$ ), 신뢰감( $\beta=0.061$ )이었다. 즉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기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이 높을수록, 대인관계에 있어

(표 6) 배경변인, 가정적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성향이 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변인	대화예절		인사예절		공중예절		
	b	$\beta$	b	$\beta$	b	$\beta$	
성별 <sup>1)</sup>	0.043	0.037	0.002	0.002	-0.101	-0.083*	
학교 <sup>2)</sup>	0.094	0.082*	0.047	0.037	0.121	0.099***	
학교생활만족도 <sup>3)</sup>	-0.039	-0.031	-0.028	-0.020	0.064	0.048	
부모와의 대화 <sup>4)</sup>	-0.021	-0.018	0.066	0.051*	-0.042	-0.035	
예절교육의 필요성인식 <sup>5)</sup>	0.018	0.015	0.112	0.086***	0.162	0.132***	
가정적 자아존중감	0.320	0.275***	0.324	0.252***	0.281	0.230***	
대인 관계 성향	의사소통	0.157	0.188***	0.167	0.181***	0.020	0.023
	신뢰감	0.013	0.015	0.093	0.096*	-0.003	-0.004
	친근감	0.086	0.101*	0.098	0.103*	0.027	0.031
	민감성	-0.004	-0.006	-0.044	-0.055	0.091	0.121***
	개방성	0.057	0.066*	0.056	0.058	-0.041	-0.046
	이해성	0.122	0.153***	0.107	0.120***	0.057	0.068
상수	0.598		0.764		1.540		
F값	51.82***		53.93***		18.45***		
R <sup>2</sup>	0.360		0.369		0.167		
Adjusted R <sup>2</sup>	0.353		0.362		0.158		
Durbin-Watson	2.056		1.830		1.998		

〈표 6〉 계속

변인	예절수행	가정예절		사교예절		음식예절		전체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성별 <sup>1)</sup>		-0.027	-0.017	0.016	0.012	-0.104	-0.073*	-0.032	-0.036
학교 <sup>2)</sup>		0.103	0.071*	0.014	0.010	0.019	0.014	0.070	0.077***
학교생활만족도 <sup>3)</sup>		-0.058	-0.037	-0.032	-0.023	0.025	0.016	-0.008	-0.008
부모와의 대화 <sup>4)</sup>		0.278	0.192***	0.006	0.005	-0.042	-0.030	0.039	0.042
예절교육의 필요성인식 <sup>5)</sup>		0.116	0.079***	0.162	0.124***	0.190	0.132***	0.127	0.138***
가정적 자아존중감		0.656	0.453***	0.211	0.163***	0.188	0.132***	0.332	0.363***
대인 관계 성향	의사소통	0.017	0.017	0.079	0.085*	0.119	0.117***	0.089	0.136***
	신뢰감	0.021	0.019	0.065	0.067*	0.085	0.079*	0.042	0.061*
	친근감	0.048	0.046	0.114	0.120***	0.073	0.070	0.071	0.106***
	민감성	-0.040	-0.044	0.070	0.087*	0.066	0.075*	0.026	0.045
	개방성	-0.004	-0.004	-0.017	-0.017	-0.001	-0.001	0.006	0.009
	이해성	0.117	0.118***	0.079	0.089*	0.105	0.107*	0.097	0.154***
상수		0.447		1.292		1.353		1.103	
F값		64.71***		25.94***		25.04***		95.74***	
R <sup>2</sup>		0.413		0.220		0.214		0.510	
Adjusted R <sup>2</sup>		0.406		0.211		0.205		0.504	
Durbin-Watson		2.025		2.037		2.031		2.039	

\*p<.05 \*\*\*p<.001

주: 가변인: 성별(여자=1, 남자=0), 학교(중학생=1, 고등학생=0),  
학교생활만족도(만족한다=1, 보통이다·만족하지 않는다=0),  
부모님과의 대화(자주한다=1, 보통이다·안하는 편이다=0),  
예절교육의 필요성인식(필요하다=1, 보통이다·불필요하다=0)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할수록, 의사소통 능력이 높을수록, 친근감을 갖고 관계를 유지해나갈수록, 타인에게 신뢰감을 가질수록 예절수행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예절을 실천하는 수행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변인들은 예절수행의 50.4%를 설명해준다. 이상을 통해 독립변인들 가운데 가정적 자아존중감을 청소년의 예절수행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정 내에서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이 예절을 보다 잘 실천한다는 결과를 밝힌 김경아(2003)의 견해를 지지한다. 또한 주위

사람들과의 원만한 대인관계성향도 청소년이 예절을 수행하는데 비교적 높은 영향력을 발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인관계성향 가운데 이해성, 의사소통, 친근감, 신뢰감의 순으로 예절수행에 대한 영향력이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에 있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원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예의범절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다고 한 지금수 등(2002)의 견해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한편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예절수행이 높게 나타나는 점은 예절교육의 필요도 인식이 높을 때 청소년의 예절수행이

원활하다고 한 이길표(1997), 지금수 등(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예절수행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는 사회생활 준비에 보다 가까이 직면하게 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예절의 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이는 본 연구의 배경변인 가운데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예절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점과 연관지어보면 졸업 후 진학, 취업, 결혼 등의 변화에 직면할 고등학생들을 위해 사회생활 준비를 돕는 측면에서 특히 수행수준이 낮은 대화예절 및 공중예절과 가정예절의 실천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한편 전체적으로 보면 회귀분석결과에서 학교생활만족도는 예절수행에 대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단순한 만족 혹은 불만족 여부 보다는 학교생활 가운데 친구,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대인관계의 성향이 궁극적으로는 예절수행의 실천에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예절수행의 하위영역별로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을 살펴보면 6개 하위영역 모두에서 청소년의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예절수행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대인관계성향이 각 영역별 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화예절수행에 있어 대인관계의 의사소통, 이해성, 친근감, 개방성이, 인사예절수행에 있어 대인관계의 의사소통, 이해성, 친근감, 신뢰감이, 공중예절수행에 있어 대인관계의 민감성이, 가정예절수행에 있어 대인관계의 이해성이, 사교예절수행에 있어 대인관계의 친근감, 이해성, 민감성, 의사소통, 신뢰감이, 음식예절수행에 있어 대인관계의 의사소통, 이해성, 신뢰감, 민감성이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기 예절수행에 대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예절의 목표는 곧 자기관리 및 대인관계와 상통하는 것임을 논의한 김정아(2003)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자아존중감과 공감능력이 매너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원은진(2005)의 연구에서도 대인관계의 공감능력과 자아존중감은 매너의 수행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논의된 바 있다. 이들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향후 청소년의 예절수행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청소년의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원만한 대인관계성향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예절에 대한 참된 인식을 기반으로 올바른 예절을 수행하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한편 하위영역 가운데 인사예절과 가정예절의 수행에서는 부모와의 대화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공유하는 시간이 많은 청소년의 경우 바람직한 가정생활규범교육이 보다 강조된 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공중예절과 음식예절의 수행에서는 성별의 영향력이 나타나 남학생에게서 이들 예절수행의 수준이 낮게 반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거하여 청소년의 인성 함양에 기반이 되는 예절수행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정과 학교의 실천적 방안에 관련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성향이 예절수행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함을 볼 때 가정에서 부모는 청소년기 자녀가 가정 내에서부터 자아존중감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원만한 대인관계의 성향들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예절수행 수준의 향상도 도모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와의 대화정도에 따라 가정적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성향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거해볼 때 가족관계 내에서 자녀의 존재가치가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기 자녀가 가족의 의사결정에 동참하고 부모와 함께 가족문제를 해결해나가기도록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사회의 현실 상 부모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다고 하는 청소년들의 응답을 볼 때 자녀가 대화를 원할 때 자녀에게 경청하여 진지한 이해와 공감을 지향하는 부모의 세심한 대화의 노력도 요구된다. 이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의논 상대가 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역할이 준비되어야 한다.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대인관계에 관련하여 자녀가 스스로 선택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와 칭찬을 함으로써 자녀가 대인관계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부모에게 좋은 아들(딸)내지는 자랑스러운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청소년일수록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에게 반응하는 상황에 자신감이 다소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 대한 감정을 명료하게 전달하여 상대방이 원하는 바에 충족될 수 있는 행동을 이행함으로써 상호 만족을 성취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은 원만한 대인관계성향의 증진에 일환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모와 대화를 자주 하지 않는 청소년집단에서 전반적으로 예절수행이 낮게 나타남을 볼 때 부모는 중·고등학교 혹은 각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 주민자치센터 등의 기관에서 마련하는 청소년의 인성 형성을 위한 자녀와의 대화방법 교육에 참석하여 원활한 대화의 노력과 더불어

자녀의 예절수행 능력 증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기 예절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따라 예절수행에 차이가 있음을 볼 때 학교는 청소년들이 현대사회에서 예절이 갖는 중요성을 먼저 인식하고 그를 실천하게끔 지도하여 예절교육의 목표인 예절의식의 함양과 예절행동의 습관화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학교에서는 청소년의 예절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선 청소년들의 예절수행 정도를 평가하여 도움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한 후 그에 상응하는 대인관계성향의 증진을 병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인사예절, 음식예절, 사교예절, 가정예절, 대화예절, 공중예절의 순으로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가 나타났다. 이 중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대화예절의 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대화귀분석 결과에서 영향력을 있는 변인으로 밝혀진 대인관계의 의사소통에서 상호 이해성, 개방성, 친근감의 증진과 대화예절의 습득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 내 특별활동교육의 일환으로 예절수업을 시행하여 친구, 교사와의 일상적인 대화를 비롯하여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의 대화매체에 수반되어야 하는 예절을 연습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예절 상황의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심어주어야 한다. 또한 공중예절의 수행은 대인관계의 민감성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함께 요청된다. 즉 개인 이기주의 확산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과 형편에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현 세대의 오류를 청소년들이 답습하지 않도록 공동체사회의 질서유지와 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한 견지에서 공중예절교육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화예절과 공중예절은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에게서 수행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과열된 입시준비에만 치우



처 고등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소홀히 여기는 우리 사회 내 가정과 학교의 실상을 반영하는 셈이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형성된 예절수행의 능력이 성인이 된 후 삶의 인성적 자원으로 활용되는 가능성을 지닌다고 할 때 사회생활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 시기의 예절수행 향상을 위한 학교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함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공중예절과 음식예절의 수행수준이 남학생들에게서 낮게 반영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급식시간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 생활 속에서 식사예절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끝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예절수행에 미치는 일부 배경변인, 가정적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성향의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그쳤으나 청소년기의 예절수행에 관련된 새로운 변인 탐색,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예절수행의 영역에 관한 표준화된 척도 구성, 그리고 청소년의 예절수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1) 강선영(2000). 실업계 여고생의 예절의식·수행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고려옥(2005). 청소년의 부모-자녀 의사소통 유형,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성향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고선주, 이은희, 나영주, 황진숙, 박숙희(2004). 중·고등학생의 성별에 따른 개인, 가족, 학교, 인터넷 요인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6), 13-26.
- 4) 곽소현(2000). 청소년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김경아(2003). 청소년의 예절수행 세대전이 및 가정생활건강성: 어머니와 청소년기 자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김경원(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김명옥(1999). 중등학교 예절교육의 실태분석과 활성화 방안.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김정원(2000). 집단 따돌림 가해-피해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9) 김태운(2005). 중·고생의 자아존중감과 문제행동 및 이타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0) 김현경(1985).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자아개념과의 상관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김희화(1998).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환경변인 및 적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 남혜진(2007). 청소년의 성별, 가정 분위기, 의사소통 유형이 갈등해결방식 및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3) 문선모(1980). 인간관계훈련 집단상담의 효과에 관한 일연구. 경상대학교논문집 19(2), 195-203.
- 14) 방문희(199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대인관계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박선아(2005). 무용/동작치료가 시설청소년

- 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박성연, 이종미, 임숙자(2001).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물질주의 가치관과의 생활·식생활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9(8), 1-18.
- 17) 박성환(2004). 집단미술치료가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 변화에 미치는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배근희, 최배영, 김길령(2006). 청소년 예절 교육. 서울: 새로운사람들.
- 19) 양원경(1999). 또래수용성 및 또래 괴롭힘과 남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원은진(2005). 대학생의 비즈니스 매너와 공감능력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윤정연, 황춘섭(2007). 거주지역별 여고생의 가정적 자아개념과 의복 행동. 복식문화연구 15(4), 569-579.
- 22) 이경주(2002). 청소년의 공감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이길표(1997). 규범서를 중심으로 한 기성세대와 청소년간의 생활예절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3), 125-137.
- 24) 이미라(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5) 이승미, 이경남(2008). 남녀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 관련 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2), 1-12.
- 26) 이연숙(1991). 가족체계 및 어머니-자녀의 사소통과 청소년 적응의 관계.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7) 이영애(1989). 고등학교 자연계 학생들의 탐구적 학습 태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8) 이완정(2003). 청소년이 주변 연장자로부터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와 기능 및 자아존중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49-60.
- 29) 이정남(2000). 중·고등학생의 예절태도와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0) 이정우, 김경아(2002).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와 가정생활건강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6(2), 79-95.
- 31) 이정우, 김경아(2004). 청소년의 예절수행 정도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8(2), 27-41.
- 32) 이정우, 김명나(1999). 어머니의 예절수행이 초등학생 자녀의 예절수행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건강생활과학연구 14(1), 1-16.
- 33) 지금수, 나지원, 이진숙(2002). 청소년의 예절 의식 및 예절수행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1(2), 135-147.
- 34) 최보가, 전귀연(1992). Coopersmith Self-Esteem Inventory(SEI)의 구성타당도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논문집 24, 1-15.
- 35) 한광희(1986). 청소년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대인관계 성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6) 한준수(2000). 개인특성과 친사회적 행동간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7) 허영부(2002). 현대교육학개론. 서울: 학문사.
- 38) 홍성례(2006). 자아존중감과 성역할태도가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5), 37-51.
- 39) 황기남(2003). 자기 성장 집단훈련이 자아존중감, 인간관계,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0) Ann Smith Rice & Suzanne M. Tucker

- (1986). Family life management(6th ed).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41) Cecile H. Edwards, Elizabeth W. Brabble,  
O. Jackson Cole & Ouida E. Westney(1991).  
Human ecology: Interactions of man with  
his environments. Washington, D.C.: Kendall/  
Hunt Publishing Company.
- 42) Ruth E. Deacon & Francille M. Firebaugh  
(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2th  
ed). Boston: Allyn and Bacon, Inc.
- 투 고 일 : 2009년 1월 15일
  - 심 사 일 : 2009년 1월 21일
  - 심사완료일 : 2009년 3월 31일